

후보 난립 광주 서구청장 보선 컷오프 거치나

‘공천=당선’ 기대속 민주당 예비후보만 8명... 총 15명 출마 거론

오는 10월27일 치러지는 광주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가 난립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서구의 미래 비전에 대한 사전 준비도 없이 ‘공천만 따고 보자’는 ‘불나방식’ 도전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7일 광주 서구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총 10명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로 ▲고재정 조선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김신욱 전 광주시의원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장 사무처장 ▲김종식 전 서구청장 ▲박규자 전 광주시의원 ▲송갑석 전 전남대총학생회장 ▲신현구 전 국회정책전문위원 ▲이정일 전 서구청장 등

8명(가나다 순)이 등록했다. 또한, 국민참여당 예비후보로 서대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과 무소속 예비후보로 송재선 전 광주시의원 등이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중이며, 이상갑 변호사, 윤난실 전 진보신당 광주시장 후보 등 총 15명 가량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 후보들이 몰리고 있는데, 대다수 후보가 ‘민주당 공천=당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로 등록된 후보 중 일부는 지역에서 인지도와 지지도가 미미한 수준으로, ‘이름 알리기’ 차원에서 선거에 나설

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일부 후보들은 여론조사 등을 통한 공천을 예상하고 인지도 높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후보가 일제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통한 인지도 쌓기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내부적인 철저한 후보 자질 검증과 주민들의 지지도 등을 감안해 서구 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모(47·서구 치평동)씨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갖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고민을 가진 인물들이 심사숙고해서 후보로 나서야 하는데 자리가 하나 비어있다고 ‘공천’만 따고 보자는 식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면 너무 심

하다는 생각”이라며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와 주민에게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압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종식 전 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와 무관한 사람이거나 지역을 옮겨다니며 출마가 직업이 돼 버린 철새 정치인 등을 가려내기 위해 정책 토론회와 서구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등 어떤 식으로든 후보를 압축하고 토론회 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겠느냐”며 “10·3 전당대회 후 첫 지역민의 평가인 만큼 지역 여론과 경험, 도덕성 등을 감안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민 건강 예방시스템 구축 협약

광주시 동구(구청장 유태명)는 7일 구청 회의실에서 전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 동강대학 등과 지역주민의 건강안전망 예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4명기자 mjna@kwangju.co.kr

北 “쌀 지원해 달라” 정부 “긍정적 검토”

남북관계 개선 청신호?

북측 태도변화가 관건

북한이 적십자 채널을 통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 지원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지난 4일 쌀과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지원을 요청한 것은 대규모 수해 복구를 위한 필요성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국면에서 탈피하고 후계체제 구축 등 체제 안정을 위해 대남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 요청을 한 지 이틀만인 6일 대승호와 선원 7명(한국인 4명, 중국인 3명)을 7일 오후 4시 동해 상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쌀 지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 지난 5일 보도된 것도 남북 간 긍정적 메시지 교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5·24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의 요청에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적이 제의한 10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지원 품목에는 라면 등 긴급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등만 포함됐지만 북측이 이번에 요구한 쌀과 중장비, 시멘트 등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북측 수해지원의 일환으로 한적을 통해 쌀 10만과 굴착기 50대, 페이로드 60대, 시멘트 10만, 철근 5천t 등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고심에는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면 북측의 대승호 및 선원 송환과 맞물려 남북관계에 상당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남북 적십자 간에 자연스럽게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고, 이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북측의 수해지원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본격적인 대화 분위기로 이어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연합뉴스

바퀴벌레에 ‘슈퍼박테리아’ 퇴치 열쇠

英 연구팀 항생물질 발견

바퀴벌레가 슈퍼박테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차세대 항생물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 노팅엄 대학의 사이먼 리(Simon Lee) 연구원은 바퀴벌레의 뇌조직과 신경계에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항생물질이 들어있다고 밝힌 것으로 AF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이 강력 항생물질은 대표적인 슈퍼박테리아

의 하나인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을 90%까지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시험관 실험 결과 확인됐으며 현재 아시아네 토박터, 슈도모나스, 버크홀데리아 같은 슈퍼박테리아 실험을 통해 이 항생물질의 작용기전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바퀴벌레는 각종 박테리아와 만날 수 있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미생물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리 연구원은 말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김재균 청년고용촉진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7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에 그쳐 작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382곳 중 40.8%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64곳은 고용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에서는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해당 기관에 벌칙을 부과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7285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지난 2008년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은 1042명의 7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한 조직을 갖는 등 분산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8년 동안의 기업 경영 경험과 10년간의 국회와 정당에서 일하며 구축한 탄탄한 중앙인맥 등을 서구발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송재선, 비민주 후보 단일화 제안

송재선 전 광주시의원은 7일 “서구민과 한마음 한 뜻으로 미래를 여는 꿈이 있는 서구건설에 매진할 것”이라며 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날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송 예비후보는 “정당 정치의 벽을 넘어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주민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청렴과 열정으로 한 가족 희망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행적인 민주당의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해 비 민주당 예비후보들에게 서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북구의회 SSM 저지 비대위 구성

광주 북구의회가 7일 대형마트·SSM(대기업 슈퍼마켓) 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대위에는 소재섭·김상훈·문해욱·이관식·이동국·이왕섭·정순영·조석호·최기영·최유진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특위 구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상인 대책위와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위 구성을 추진한 소재섭 의원은 “대형 마트 문제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점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북구 위원회 여성 참여율 높여

광주 북구의회는 7일 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 장애인 구청참여도 늘여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수정 북구의원은 “1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참여율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개방형 감사관 선임 철회 촉구

민노노동당 광주시당은 7일 논평을 내고 “광주 남구청 첫 개방형 감사관 최종합격자는 최영호 남구청장의 인수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감사관제 도입을 추진했던 담당자이자 구청장의 핵심 측근”이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고 측근을 채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어 ▲채용 및 심사과정 투명 공개 ▲개방형 감사관 결정 철회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재인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남구청은 7일 개방형 감사담당공모 결과 응시자 8명 가운데 경실련 등에서 활발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벌인 김재석(49)씨를 선임했다. 하지만 김씨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의원 경선 후보로 나서 탈락한 뒤 최영호 남구청장의 인수위원회 팀장으로 활동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현구 서구청장 보선 출마

신현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7일 “정치력 있는 CEO 구청장이 되어 서구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광주 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일 예비후보로 등록된 신 예비후보는 “이번 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지난 7·2 남구 국회의원 보선처럼 비민주 단일후보와 1대 1 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행정경험뿐 아니라 지역에 탄탄

현대약품(주) | 광고상인번호: 1059-1200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땡큐죠

빠지는 머리칼과 개수에 신경 쓰이면 효과가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18세~65세 남성) 170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모발 개수와 굵기가 증가되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

■ 마이녹실 임상결과

결과	비율
매우호전	2.94%
호전	27.65%
약간호전	62.35%
기타 (호전않음, 악화)	7.06%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즉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우호전 5명(2.94%), 호전 47명(27.65%), 약간호전 106명(62.35%)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외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임상연구 참여기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관동대학교, 명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의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가나다 순) 14개 대학병원 피부과 공동참여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 제품문의 | 080-024-5525 / 02-2600-3884